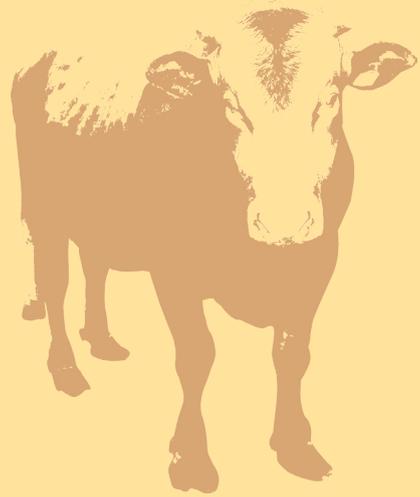


# 울산 울주 ‘한사랑농장’ <한우능력평가대회 대통령상> 충북 음성 ‘풍산농장’ <한우경진대회 그랜드챔피언>

한우 최고 권위에 두 대회인 한우능력평가대회와 한우경진대회. 이 두 대회에서 대통령상과 그랜드챔피언 상을 받은 농가에게는 어떠한 특별함이 있을까?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두 농가 모두 오래전부터 농협 사료를 이용하는 충성도 높은 고객이라는 점이다. 본지는 이번호 기획으로 이 두 농가의 수상비결을 알아봤다.



## 울산 울주 ‘한사랑농장’

### “최고 소 사육 비결? 평소 하던 대로 기본에 충실”

암소 유전능력 정확히 파악 후 정액 선정  
예방백신 등으로 철저한 질병관리가 핵심  
농협사료 전 구간 사용...품질 100% 만족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에서 한우 70여두를 번식우 위주로 일관사육하고 있는 윤순주 한사랑농장 대표.

윤 대표는 지금 한우산업 최고의 스타다. 국내 최고 권위의 한우 고급육 경진대회인 ‘제21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기 때문이다.

처음 대회에 나가 큰 상을 받게 된 윤 대표의 출품 한우는 도체중 579kg, 등심단면적 138cm<sup>2</sup>, 육질



▲ 윤순주 한사랑농장 대표.

및 육량 등급 1++A의 성적을 기록했으며, 경매단가는 kg당 11만원인 총액 6천369만원에 낙찰됐다.

윤 대표가 한우와 인연을 맺은 건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이다. 남편이 울산축협 개량담당 과장으로 30여년 간 개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남편이 축협에 입사하기 전인 1985년부터 한우를 사육하고 있었다. 1988년 결혼한 윤 대표가 자연스럽게 직장생활을 하는 남편을 대신해 한우를 주도적으로 사육하게 됐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20~40두를 번식우 위주로 사육하던 윤 대표는 2011년 지금의 농장을 짓고 이듬해 암송아지 20두를 한 번에 외부에서 구입하여 입식하면서 지금의 규모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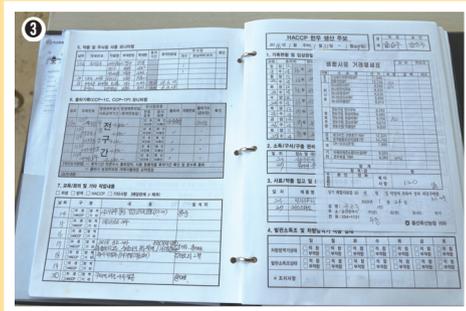
윤 대표가 한우사육 초기부터 가장 신경 쓴 것은 바로 '개량'이다.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내가 보유한 암소의 유전능력을 정확히 파악해 이 능력에 맞춰 부족한 유전형질을 채워줄 수 있는 정액을 선정하는 등 개량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새로 우사를 짓고 우사 규모에 맞게 암송아지 20두를 한꺼번에 구입한 후에는 더욱 체계적이고, 철저히 개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외부입식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확실히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개량한 소의 능력이 뛰어납니다.”

## 개량에 매진

현재 번식우는 34두가 있는데 최고 8산차를 보유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4~5산차가 대부분이다. 또 기초등록우는 1두이며 나머지는 전량 혈통등록우 이상이다.

연간 25~30마리의 송아지를 생산하고 있는 윤 대표는 암·수송아지 각각 3~4마리를 남기고 전부



외부에 판매하고 있다.

“우사 규모 상 어쩔 수 없이 생산한 송아지의 70% 정도를 외부에 출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송아지의 경우 외부에 판매했더라도 출하성적을 알 수 있는데 고급육 성적이 자체적으로 사육해 출하한 거세우와 비슷하게 너무 좋게 나와 ‘내가 몇 십년동안 한우를 키운 게 틀린 방식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능력평가대회에 처음으로 출전했지만 그래도 평균 이상은 할 것이라고 자신감이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최근 대통령상을 받은 소와 같은 조건으로 키운 소 2마리가 1++를 받았다는 윤 대표는 내년에 지금 우사 인근에 150두 규모의 우사를 새로 지어 거세비육우를 사육하고 지금의 농장에서는 번식우만을 사육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생산한 소에 대해서는 전부 외부 판매 없이 스스로 사육할 계획이라는 윤 대표는 번식우 사육마릿수는 최대 50두 내외로 제한할 것이라고 했다.

“비육우도 그렇지만 특히 번식우는 주인의 손길이 많이 갑니다. 신경 쓸 일도 많고요. 혼자서 철저히 관리하면서 사육하기 위해서는 번식우는 50두 내외로 키우는 것이 최대치라고 생각합니다.”

### 철저한 계획에 의한 사료 급여

사양관리 측면에서 윤 대표는 특별한 것이 아닌 질병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임신우는 분만 6주와 4주전에 설사백신을 놓고 분만 후 한 달이 지나면 구충제를 주사합니다. 신생송아지는 태어나면 3일정도 면역증강제와 설사예방약을 먹이고, 15일 후와 30일 후에 두 차례에 걸쳐 액상으로 된 콕시듐 약을 먹이고 있습니다. 이밖에 매

- ① 지난 10월 17일 농협 음성공판장에서 열린 제21회 전국한우 능력평가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윤순주 대표(오른쪽)와 남편 황태성 씨.
- ② 이번 대통령상 수상축을 생산한 어미 소. 이 어미 소가 2산차(KPN905)에 생산한 소가 대상을 받았고, 그 후 수송아지, 암송아지 한 마리씩을 더 낳아 현재 4산차이다.
- ③ 2012년 HACCP인증을 받은 윤 대표는 HACCP 농장 가이드에 따라 개체별 예방 접종 등을 철저히 기록하고 있다.



▲ 청결한 농장 내부 모습.



▲ 대통령상을 받기까지 함께 노력해온 주역들. (왼쪽부터)울산축협 브랜 드팀 김병태 과장, 윤순주 대표, 농협사료 울산지사 이연근 지역부장, 전창선 팀장.

년 5월이면 아까바네 예방백신도 소 전체에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끔 주위 농가들이 설사 등으로 인한 송아지 실패가 거의 없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무조건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답변해줍니다.”

윤 대표는 2012년부터 생산한 송아지 중 실패한 두수는 5마리라고 했다. 2마리는 난산으로 인한 실패였고, 2마리는 지난해 여름 아침까지 멀쩡하던 송아지가 저녁에 갑작스럽게 죽어서 날씨가 너무 더워 일어난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표는 사료급여도 철저한 계획에 의해 급여하고 있다.

송아지가 태어나고 보름이상 지나면 입붙이기 사료를 조금씩 급여시키고, 여기서 보름이 지나면 어린송아지 펠릿사료를 조금씩 주다가 서서히 양을 늘려간다고 했다. 어린송아지에 대해서는 어린송아지 사료를 주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육성우사료를 한 움큼부터 시작해 서서히 양을 늘리면서 충분한 기간을 갖고 육성우사료로 교체해주고 있다.

조사료는 벧짚과 옥수수, 그리고 청보리를 직접 생산해 자급조사료 비율은 80%정도이며, 나머지는 외부에서 구입한 수입건초 등을 급여하고 있다.

**사료는 TMR사료와 배합사료, 조사료를 골고루 섞어서 급여한다. 비육우의 경우에는 출하 6개월전 부터 마블맥스-3를 첨가해 급여하고 있다.**

“소도 예민하기 때문에 적응기간을 거치지 않고, 사료를 갑자기 바꾸면 설사 등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매번 사료 출때마다 일일이 사료 급여를 개체별로 신경 쓰다보면 우사를 몇 바퀴는 돌아야 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이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우를 키운 처음부터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료를 주면서 소를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고, 또 조금씩 잘 크는 모습을 볼 때 하루하루가 소 때문에 행복합니다.”

윤 대표는 우사 청결에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2012년부터 HACCP인증을 받고 있는 윤 대표는 음수조나 사료조를 하루 한번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농장을 수시로 돌리면서 조

곰만 더러워져도 하루에 몇 번이고 청소해주고 있다.

## 자식 같은 마음으로 사육

“제가 한우를 사육할 때 처음 마음이 소를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보살피자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번식우 위주로 소를 사육한 것도 비육우를 다 키워서 내보낼 때 가슴이 아픈 것도 한 이유였고요. 소를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스트레스를 안 주는 방향으로 사육한 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까지 소 기록 관리를 수기로 직접 해왔던 윤 대표는 지난해부터 HACCP관리, 개체관리, 번식관리, 등급관리, 교배계획, 경영관리 등을 국립축산과학원 한우리 시스템을 활용해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울산축협 한우브랜드인 ‘햇도우랑’ 회원농가인 윤 대표는 한우사육 후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전 구간 농협사료만을 급여해오고 있다.

“단 한 번도 농협사료외에 다른 사료를 급여한 적이 없을 정도로 농협사료에 대한 신뢰감이 큼니다. 사료 품질에 대해서도 100% 만족하고 있고요.”

윤 대표는 인터뷰 내내 특별한 사양관리보다 기본에 충실한 사양관리가 수상을 하게 된 원동력이라면서 꼭 다두사육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만 제대로 지켜 소를 사육한다면 농가 누구나 최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 것 같아 이 점이 특히 기쁘다고 했다. **한우** 【윤진상】



▲ 한사랑농장 전경.